

제자훈련 402 CLASS

# 재생산과 양육

수강자 이름: \_\_\_\_\_

# 재생산과 양육 I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던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때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몇몇 사람을 택해서 개인적인 양육을 하곤 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이다. 이제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오랫동안 바울은 이 때를 위하여 디모데를 양육해 왔던 것이다.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또 저들로 하여금 네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 역사다. 우리를 앞서 가신 수많은 충성된 승계자들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낳고,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또 디모데가 그가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기에 이 도(道)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永生)의 소망 가운데서 생의 의미를 갖고 살게 된 것이다. 마치 우리의 부모가, 조부모가, 또 증조부모와 고조부모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 중 한 분만이라도 재생산(再生)하지 않으셨더라면 현재 우리가 있겠는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代)에서 그 승계가 끝나지 않아야 한다.

## 1. 주님의 명령

(1) 다음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답하라.

- a) 타락 전(창 1:28)

b) 회복 후(마 28:19~20)

(2) 마태복음 1 장 1~17 절을 묵상하라.

a) 여기에 나오는 인물의 대부분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러나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의 많은 행적은 생략하고 그들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만을 기록했다.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b) 나에게 주는 의미는?

2. 순종의 예

(1) 구약의 인물

a) 아브라함(창 12~22 장)

b) 이삭(창 21~25 장)

c) 야곱(창 29:16~30:25; 창 35:11,16~18)

d) 이스라엘 백성(출 1:7)

(2) 신약의 예

a) 예수님 제자군(群)  
3, 12, 70, 120, 500.....

b) 초대교회  
2:47, 4:4, 5:14, 11:21.....

c)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누가, 마가, 에바브라,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아킴보 등등

3.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 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제자가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게 하여야 한다. 낳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양육'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성경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1) 마데테스(Mathetes:제자)가 내포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라.

- a) 사도행전 11 장 26 절
- b) 누가복음 14 장 26~27 절
- c) 마가복음 8 장 34 절

4. '제자삼기', 이것은 우리의 지상과제다.

그러나 모든 과제가 다 그렇듯이 이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1) 제사장적 목자

초대교회 때는 이 일이 잘 계승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교회가 커지면서 기관화, 세속화,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교회 내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연의 업무(엡 4:12; 딤후 2:2) 를 잊고 구약의 제사장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2) 종교화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기관이 아니라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조직으로 바뀌어 버렸다.

## (3) 평신도 계급의 출현

교회 안에 점점 더 수동적이며 받아먹기에 자족하는 교인들이 많아져 드디어 평신도(Layman)라는 용어가 교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 5.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아래의 질문을 '나'와 '우리' 에게 적용시켜 보라.

- (1) 교회가 점차 기관화, 조직화되고 있는가?
- (2)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3) 교회 내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4)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엡 4:12)
- (5) 나는 재생산의 경험이 있는가?
- (6) 나는 양육의 경험이 있는가?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을 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어 달라는 것이다." (SirJohn Lawrence)

## 암송 구절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 재생산과 양육 II

### 1. 분명한 목표 설정

트리니티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였던 콜먼(Robert Coleman) 박사는 자신이 쓴 「Master Plan of Evangelism」에서 예수님의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 그가 말씀하신 하나하나, 행동하신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계획된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의 일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부분적인 것을 연구해 보면 전체적인 그분의 계획도 알수가 있다. 그 부분들을 맞추어 볼 때 '아, 이래서 이 부분이 여기 와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고 모든 자신의 행동, 말씀들을 적시에 사용하셔서 그 목표에 맞추어 이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다.”

※ 요한복음 17 장 4 절을 참고하라.

### 2. 제자들을 통한 목표 달성

예수님은 목표가 있으셨다. 곧 세계 복음화이다. 주님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셨는가 하는 방법을 놓고 성서를 연구해 보면 대답은 한 가지로 나오게 된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다.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계획은 몇 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과업을 위임하시는 것이었다. 결국 이 선택된 몇 명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얼마나 조심스러우셨던 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토론: 누가복음 6 장 12~13 절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라(요 17:6 참고).

### 3. 예수님의 계획

주님께서 어떻게 몇 명의 어부들을 선택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훌륭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놓으셨나를 공부하겠다.

참고: 콜먼(Robert Coleman) 박사의 Master Plan of Evangelism」

#### (1) 누가복음 6 장 13 절(제자 선택)

- a)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
- b) 소수의 사람들
- c) 가능성 있는 사람들

토론: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 (2) 마가복음 3 장 14 절; 요한복음 15 장 27 절.....

- a) 안다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이다(요 1:3, 1:43, 1:46; 막 1:17, 2:14;5:27; ° 4:19).
- b) 같이 있다는 것은 인간 관계를 의미한다.

#### (3) 마태복음 16 장 24~25 절(헌신)

- a) 십자가의 길(눅 16:13; 막 8:34~38; 마 16:21~25; 눅 14:33)
- b) 순종의 길(14:15, 21, 23, 24, 15:10, 12)

#### (4) 누가복음 22 장 19 절(부여과정)

- a) 요한복음 15 장 15 절, 17 장 4 절, 8 절, 14 절

b) 요한복음 3 장 16 절

c) 마태복음 20 장 28 절

(5) 요한복음 13 장 15 절(본을 보임)

a) 기도(눅 11:1~10; 마 6:9~13; 요 17 장; 마 26:36~44)

참고: 복음서에는 적어도 20 번 이상 주께서 기도하신 예가 나타나 있다.  
(3:21, 6:12, 9:29.....)

b) 말씀(막 12:36; 마 22:43; 요 10:35; 막 7:13)

참고: 복음서에는 주께서 적어도 구약의 말씀을 62 번 정도 제자들과 나눈 것을 기록하고 있다.

c) 전도(막 1:14~15; 마 4:23; 요 4:7~34)

d) 섬김(요 13:5~20; 막 6:53~56)

e) 용서(요 8:1~11, 21:15~17; 눅 22:47~53, 23:34)

(6) 마태복음 10 장 1 절(위임)

a) 제자로 부르신 목적(마 4:19)

(7) 누가복음 10 장 17~20 절(감독)

a) 마태복음 17 장 14~20 절

b) 마가복음 8 장 17 절

(8) 요한복음 15 장 16 절(파송)

#### 4. 우리의 자세

예수님의 계획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조심스럽게 계획된 세밀한 청사진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의 삶이 3년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최대한 그시간을 활용하셨으며 그 3년의 삶이 인류의 갈 길을 정해 놓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다. 그분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청사진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묵상해 보고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겠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 5. 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 (1) 증식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 (2) 세계를 품안에 넣어야 한다.
- (3)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 (4)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한다.
- (5) 가장 보람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 재생산과 양육 III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주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를 배웠다.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떻게 제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전체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심스럽게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와 좌절의 아픔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 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를 좀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봄으로써 우리의 당면 과제에 적용해 보자.

### 1. 예수님의 가르침

(1)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a) 요한복음 5 장 30 절

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했는지 기술하라.

②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b) 요한복음 15 장 5 절을 읽고 '우리가 주를 의지함' 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

(2) 그는 기도했다.

a) 누가복음 6 장 12~13 절을 읽고, 주께서 어떤 자세로 자신의 제자를 선택했으며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라.

- b)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원하는 제자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7 장 7~8 절을 읽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떠한지 묵상해 보라.

이 일은 우리의 소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음을 갖고 구하라.

(3) 예수님이 먼저 초대했다.

- a) 마태복음 4 장 17~19 절을 읽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데 어떤 자세로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 b) 마태복음 28 장 19 절을 읽고, 주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

## 2.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들

(1) 요한복음 1 장 35~39 절을 읽고 예수님을 찾던 두 제자의 자세를 요약해 보라.

(2) 나dana엘은 어떤 인물이었는가?(요 1:47)

(3)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는가?(마 9:9)

주님은 제자들을 취하실 때 지위를 고려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생겼는가를 따지지 않으셨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을 참작하지 않으셨다. 다만 '뚱뚱한(Fat)' 사람만을 원하신다. 이 뚱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보자.

(4) 누가복음 5 장 8 절을 통해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다른

모습의 제자 후보상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결국 뚱뚱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5)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양육받은 사람은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3. 제자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제자 선택 과정 중에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기 쉬운 주의점이 몇 가지 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욱 성공적인 제자 훈련을 인도할 수 있다.

(1) 목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 세계인에게.....” 이다. 단순히 우리 교회나 혹은 나의 그룹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이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행 1:8).

(2)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에 종속되어 사는 경향이 있다. 제자 선택에 있어서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하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욱 중요하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나중에는 인류에게 마태복음을 선사한 위대한 저자가 되었다.

(3) 일부러 어려운 상대를 택할 필요는 없다.

쉬운 상대와 시작하라. 사람을 현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때 '쉽게 그것이 가능한 상대냐, 아니냐?' 라는 질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숙제: 섬길 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4)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나 믿음으로 결심하라.

제자를 선택할 때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가능성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 충분히 기도한 후 믿음으로 결정하라. 이 과정에서도 성령님의 기대 이상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전화 한 통화로 이 위대한 장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만 디디면 된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더욱 더 친밀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것이다.

#### 4. 제자들을 선별하는 몇가지 방법들

(1) 초신자와의 만남

(2) 개인 전도

a) 기존의 인간 관계를 통한 만남

b) 교회 내 제자 훈련 모임이 있을 때 그들을 초대하여 동기를 부여한 후 시작할 수 있다.

★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5).

## 재생산과 양육 IV

제자를 선택했다. 이제 어린 아이를 낳은 것이다. 아이를 낳은 사실은 생명을 창출했기에 중요하지만, '돌봄'이 없으면 그 아이는 병에 걸려, 혹은 굶주려 곧 죽게 된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양육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양육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와 원리를 갖고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읽고 아래의 말씀들을 특별히 유념하여 상고해 보자.

### 1. "가운데서"

양육의 첫번째 원리는 '가운데서'이다. 양육하는 자가 양육받는 자 안에 같이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예수님께서서도 그 본을 보여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고 말씀들을 묵상해 보라.

- a) 말씀이 육신이 되어
- b)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c)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① 진리(Aletheia, 시 15:1~2 참조)

참고:Emeth

② 은혜

(2) 어떻게 양육받은 자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 a) 기초적인 원리, 구체적인 원리들을 배우기 전에 그 원리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공적으로 양육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지식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경험이 각별한 것도 아니며 또 타고난 자질이 양육에 알맞기 때문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즉 그들은 모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기의 삶을 그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3 장 1 절을 읽고 요한이 느꼈던 예수님의 양육 원리를 생각해 보라.

※ 사람들은 프로그램 때문에 끌리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에 끌리게 마련이다.

- b) 구체적인 제안

- ①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대하라.
- ②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 있으라.'
- ③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같이하라.
- ④ 편지나 짤막한 노트를 수시로 보내라.
- ⑤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할 이유는 없다.

2.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제자를 삼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다. 그와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둔다” (갈 6:7)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나의 삶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양육의 열매가 많이 혹은 적게 맺히게 되는 것이다.

- (1)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 (2)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항상 있어야 한다. '유순함'
- (3) 먹여 주어야 한다.
  - a) 정기적인 성경 공부를 계획하라.
  - b) 성경 암송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라.
  - c) Q.T. 적용을 나누라.
- (4)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 a) 전도의 삶
  - b) 오래 참음의 삶
  - c) 기도의 삶
  - d) 항상 감사하는 삶
  - e) 섬김의 삶 등등
- (5) 일주일 단위로 제자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실천하라.
- (6) 양육일기를 써보라. 일기를 쓸 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기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a)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는가?
- b)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해 가고 있는가?
- c)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해 가고 있는가?

## 재생산의 삶 / 도슨 트로트맨

나는 몇 년 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를 방문하는 동안, 어느 성의 바로 밑을 지나가는 하이스트릿에 서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내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해보였고 옷도 잘 입고 있어서 분명히 잘사는 사람들로 보였다. 그들이 지나갈 때 아이가 보고 싶어 슬쩍 들여다보려고 하니 그들은 내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을 눈치채고 작고 발그스름한 뺨을 가진 아이를 내게 보여 주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그에게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한 여자를 택하게 하시고, 또 그 여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를 모든 남자들 중에서 택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에게 자손을 갖게 해주셨다. 어린 아이에게서 아빠의 성격과 엄마의 성격, 그리고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아이를 보고,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며, 그 동안 못 본 내 아이들 때문에 집 생각이 났다.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서 있는 동안, 또 다른 유모차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유모차는 낡아서 몹시 흔들거렸다. 그 부부는 분명히 가난해 보였다. 둘 다 옷을 잘 입지 못했고 평범했지만, 내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전 부모들처럼 자부심을 갖고, 작고 발그스름한 뺨과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들의 아이를 보여 주었다.

나는 그들이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양손에 다섯 개의 작은 손가락들과 작은 입, 그리고 두 눈이 있다. 잘 키우기만 하면 이 작은 손이 장래 어느 날, 미술가의 손이나 음악가의 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부자나 교육을 받은 사람만 택해서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하시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이 땅 위에 있는 누구나가 다 아이를 가질 특권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모양을 닮은 아이를 가지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 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 나는 꼭 너와 같은 아이들을 더 원한다. 내 형상과 같은 사람들을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 장애

인간이 육신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그들이 결코 결혼을 하지 않을 때이다. 만일 그들이 결합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재생산에 관해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진리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번식을 막는 두 번째 이유는, 번식에 필요한 몸의 생식 부분에 손상이나 병이 있을 때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죄는 길 잃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병이다.

사람들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하셨다. 남자아이는 생활

능력을 갖도록 충분히 성숙해야 하고, 여자아이는 아기를 돌보기에 충분하도록 나이가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속에 묻히기 위해서 걸어가는 시체처럼, 단순히 살다가 죽도록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초월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새로운 출생, 예수 안에서 새로 출생한 아기들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숙해지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런 후에 그들은 변성하게 된다. 부자이고 교육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변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각 사람은 변성한다.

육신적인 세계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당신은 조부모가 된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들은 증조부모가 된다. 또한 증조부모님의 부모님은 고조부모님들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이 되어야 한다.

### 영적인 아이들

어디서든지 당신이 아는 기독교인이, 한 번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 일는지도 모른다. 그가 많은 교리를 알지 못하고,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 충분한 지식을 갖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년왕국에 대해 논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미숙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전 3:1).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미숙하여 영적 재산을 못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거둬나게 하는 일을 도울 수가 없다. 바울사도는 계속 말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어거니와.....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전 3:2~3). 나는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많은 교인들과 주일학교 반사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을 안다. "아무개 애기 들어보셨어요?"로 시작해서 잡담을 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들이다. 신자가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질 가지니..... 거짓된 혀....." (잠 6:16~17). 내가 아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남자와 여자들, 이런 자들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 (잠 6:19) 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재생산할 수가 없다. 마땅히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데 병에 걸려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거둬나게 하지 못한다.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세상 관점에서 지식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당신과 주님 사이의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라면, 당신은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어릴지라도 주 안에서 당신은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

'팻'이라는 한 젊은 아가씨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우리 사무실의 전화 교환실에서 일을 한다. 일 년 반 전, 그녀는 영국에 있는 청년 공산주의 연맹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후 곧 그녀의 연예인 학교 몇몇 자매들과 다른 몇 명의 자매들을 주님께 인도하였다. 우리는 팻과 그녀가 인도한 몇 명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들이 주께로 인도한 자매들을 가르쳤다. 이들 중에 몇은 아직도 다른 분들을 주님께 인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그들의 친구들을 훈련시킨다. 팻은 주님 안에서 이제 1년 4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영적으로 증조모가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자주 있다. 나는 선원 중에 주님 안에서 태어난 지 4 개월 만에 증조부가 된 분을 알고 있다. 그는 몇몇 선원들을 주님께 인도했고, 그들이 또 다른 선원들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인도된 사람은 아직도 다른 선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다. 그는 이제 겨우 4 개월짜리인데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 젊은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과 넘치는 기쁨을 순수한 채널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씨앗을 다른 사람의 심령에 뿌렸다. 그 씨가 뿌리를 내렸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하여 온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자기들이 인도한 새신자들을 보살피고 기쁨과 평화, 모든 것의 스릴(thrill)을 나누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느낀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5 년, 10 년, 20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들 때문에 거듭난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는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나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10 만 부의 종교 소책자를 배부했다"라고 좋다. 그러나 당신은 몇 명의 양을 데려왔는가?

얼마 전에 나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여름학교에 참가하고 있던 29 명의 선교사 후보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대학과 성서학교, 그리고 신학교 졸업생들이었다. 그들의 이사(事) 자격으로 닷새 동안 각 후보자들과 30 분 내지 한 시간 정도씩 면접을 했다. 면접 중에 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다.

첫번째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주님과 보낸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고 느끼십니까?"하고 물어보았다. 특수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29 명 중 오직 한 명만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여름학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코스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는 1 년분의 학습을 10 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대학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까?" 하고 묻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구주를 알고 난 후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불임의 이유였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당신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하고 물어보았다.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저 결심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주님께 인도한 사람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몇이나 댈 수 있습니까?"

과반수가 대양을 건너가 외국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첫번째의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많은 사람을 교회에 인도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설교 후 새신자들을 강단 앞으로 초대할 때 강단 앞으로 나가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위해 삽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눈을 떨구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런 후에 나는 다시 계속했다. "당신은 어떻게 대양을 건너가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까? 이곳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그곳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선교사나 선교사 지망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당신은 자녀를 갖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왜일까? 가장 중요한계획의 한 부분이 되는, 가장 친근해야 될 당신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영적 교제의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남에게 뺏어 나가야 할 신앙의 흐름을 멈추게 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도 당신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일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히 5:12).

재생산할 사람을 키워내는 방법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없는 이유는, 강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23 년 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거듭난 한 해군사병과 얼마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사람을 영적으로 번식시키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 30 분 동안의 예배와 내주에 다시 오라는 초대와 함께 성급히 작별하듯, 그렇게 서둘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같이 보냈다. 우리는 그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의 화살들로 그의 화살집인 심장을 채우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렇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화살을 들어, 그의 입술에 활을 끼우고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게 한다.

그 해군 병사는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 중 아무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그냥 따라오기만 즐겨하는, 참여에만 의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는 한 달 후에 내게 와서 "선생님, 저는 이 배의 선원들 중에서 아무도 저와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 한 사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얻을 때까지 두 사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잘 따를 한 사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와서 "제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하고 말했다. 후에 그는 젊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다. 내가 그와 함께 일을 시작한 3개월 후에 그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은 것이다. 이 첫번째 선원은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밀어 주고, 상을 주어야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일했고, 이들 두 동료들은 자라기 시작했으며 영적인 번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 군함이 진주만에서 가라앉을 때까지 125명이 구세주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때 그 군함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4개 대륙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 사단의 가장 큰 수법은 이런 일이 시작되기 전에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회를 주기만 하면 당신이 시작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믿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주위만 맴도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부모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자.

아침에 일터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어디를 가십니까?"

"돈 벌러 갑니다."

"돈은 왜 버십니까?"

"먹을 것을 사야 하기 때문이지요."

"먹을 것은 왜 사십니까?"

"먹어야 힘을 얻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무엇을 하십니까?"

"옷을 사야지요. 그래야 일하러 갈 때 옷을 입을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집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쉴 곳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일을 잘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계속된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런 범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

“그밖에 또 무엇을 하십니까?”

“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면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는 욕망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 달라고 기도한다. 그것이 여섯 달이 걸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첫번째 사람이 6개월 만에 다른 한 사람을 얻게 되고 이 두 사람이 다음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일 년이 되면 4명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러는 도중에도 성경공부반을 맡아 가르치거나 노상 전도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년 후에는 4명이 함께 모여 기도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심을 한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길로 빠지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최소한 한 명을 끝까지 돌봐 줍시다.”

그러면 다음 6개월 동안 4명이 한 명씩을 전도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1년 반 후에는 8명이 된다. 2년 후에는 16명이 된다. 3년 후에는 64명으로 16명의 네 배가 된다. 5년 후에는 1,024명이, 15년 후에는 약 2,147,500,000명이 된다. 바로 이 숫자가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세 살 이상 된 인구의 숫자이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 보라! 첫 번째 사람인 A가 B를 전도하고, A가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동안 B가 그 자신의 사람을 얻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상상해 보라. B가 결길로 빠지고 그의 첫번째 사람을 전도하려는 생각이 없어지며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15년 반 후에 2,147,500,000의 수는 1,073,750,000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사단이 B를 불임증에 걸리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창 21:12).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주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에게 칼을 들었을 때, 만일 히틀러가 그때에 있어서 이삭을 죽였다면 히틀러는 한 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단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기독교인들을 몹시 바쁘게 만들어서 재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남성들이여! 당신이 구원해야 할 한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여성들이여! 당신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한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열왕기상 20 장에 한 사람이 그의 종에게 포로를 잘 감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 종이 이 일 저 일을 보는 동안 포로는 도망가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는 우리가 너무 바쁜 것이다.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버느라고 바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생산성이 없는 영적 활동을 한다. 생산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살펴 주는 결과에서 온다.

전공 과목이 재생산

5년 전 빌리 그레이엄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도슨, 우리는 자네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보살펴 주기 바라네. 나도 위대한복음 전도자들과 목사들에 관해 연구해 봤는데 거기에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보살펴 주는 프로그램이 없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네. 우리는 한 달 동안의 캠페인에서 6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심한다네. 나는 자네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빌리, 나는 6천 명을 끝까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살펴줄 수가 없네. 내 일은 항상 개인들과 작은 그룹과 함께 일하는 것일세."

"하지만 도슨, 나는 가는 곳마다 네비게이토인들을 만나게 되네. 나는 위튼에 있는 학교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이 지금은 나의 학교에도 있네(그 당시 빌리 그레이엄은 North Western School의 총장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있을 것일세."

"나는 시간이 없다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다시 공박했다. 세 번째 그는 나에게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도슨, 나는 전도대회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다네."

그때 나는 대만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빌리, 내가 대만에 가 있는 동안 그 일에 대해 기도드리겠네."

나는 대만의 해변가를 두세 시간 왔다갔다하면서 기도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일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1년 중의 6개월을 빌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부담을 주셨다. '왜 빌리는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할까? 나는 대만을 떠나기 전 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빌리, 아무래도 나 말고 딴 사람을 구해야 되겠어."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누구를 구해? 누가 이 일을 전공하는 전문가인데?"

나는 그때 내가 바로 이 재생산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고, "하나님, 제게 사람을 보내 주셔서 저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게 하소서. 혹 보내주신 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라면 저로 하여금 그를 훈련시켜 재생산하는 데까지 이끌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교회의 좌석을 꽉 채우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당신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백 명의 죽은 사람이나 불임증에 걸린 사람이나 또는 미숙한 사람을 갖는 것보다는 한 명의 이삭을 갖는 것이 더 좋다.

### 양육의 시작

오래 전 어느 날, 나는 작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 젊은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차를 멈추고 그를 태웠다. 그는 차를 타자마자 "Jesus Christ!" 하면서 "차 한번 얻어 타기가 정말 힘들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구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들을 적마다 마음이 아팠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소책자를 꺼내 젊은이에게 읽어 보라고 주었다. 그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며 말했다. "전에 어디선가 뵈던 것 같은데요?" 나도 그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우리는 일 년 전에, 바로 이 길에서 만났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때 내가 그를 태워주었을 때, 그는 골프를 치러 가는 중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때도 오늘과 똑같이 "Jesus Christ" 라고 했고, 나는 그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펴서 구원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헤어질 때 나는 그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는 빌립보서 1 장 6 절 말씀을 주었다. 나는 "젊은이, 축복을 받게. 이것을 읽어보게." 라고 말하고 내 갈 길을 갔었다. 그런데, 1 년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거듭난 증거는 조금도 없고 이 젊은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인 것이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할 엄청난 흥분에 사로잡혔다. 내가 이 젊은이를 골프장 가는 길에서 두 번째 만남 후에 나는 과거에 내가 전도한 몇 사람을 다시 찾아보았다. 내 마음이 무척 아팠음을 말하고 싶었다. 빌립보서 1 장 6 절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한 미국 청년이 내 사무실로 찾아와 자기가 인도한 모든 영혼들에 관해서 말했다.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들이며, 그것을 증명할 명단도

가져왔다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사람은 지금은 믿지 않고 있으며, 저 사람은 다시 죄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단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한사람도 승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네 성경을 나에게 주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의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펴서 두꺼운 종이를 1장 6절 밑에 놓고 나의 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내어 그 구절을 오려내려고 하였다. 그는 내 손을 붙잡고 물었다.

"무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구절을 잘라내려고 그러네. 이 구절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가? 6절 말씀을 문맥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인용만 했기 때문이다. 바울사도는 단순히 "주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끝내실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영혼을 구하고 나서, 대개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는 "나는 막 그를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 "당신 아이들을 누가 돌보니까?"라고 물었다고 가정하자. "내 가족이요? 오, 그들은 주님께 맡겼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즉시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을 위한, 한 성구를 내가 가지고 있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딤후 5:8).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행 20:28).

당신은 하나님을 감독자로 삼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감독자로 삼으신다.

몇몇 사람들을 새로 믿게 하고 양육을 시작한 지 2~3년 후에 네비게이트

선교회가 창설되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체를 투자했지만 곧 나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 1:3~5), 그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와 교제를 계속해 왔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7 절과도 일치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그냥 놓아버리기 전에 양육이라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다. 나는 그들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첫번째 선원이 내게 온 후 즉시 내가 3 개월을 그와 함께 보낸 것에 대한 가치를 안 후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안에서 이삭을 보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20 분에서 2 시간 동안에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다시 죄의 세계로 빠지는 길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20 주에서 2 년이 걸린다. 그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또한 문어발처럼 사람들을 잡아당기고 끌어서 길을 못가게 막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와 철학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을 얻을 때, 사역의 영역은 두 배로 늘어난다. 사실은 두 배 이상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고 당신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교회의 목사로서, 집사나 장로들에게 헌금을 걷게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 일들을 해 주신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큰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다. 다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것들이다.

당신이 낳고 양육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생산의 경험이 있는가? 양육해 보았는가? 하나님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나는 영적으로 불임증에 걸려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혹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부족해서 재생산과 양육에 지장이 있다면 그 영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라.

우리 네비케이토는 초창기에 해군 사병들이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식사가 끝난 후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요구했었다. "만일 당신이 48 시간 동안 배운 것 중에 한 구절을 알고 있으면 암송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날 저녁에도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성경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을 때, 내 세 살짜리 딸의 차례가 되었다. 내 딸이 성구를 암송할 수 있는 줄을 모르는 새 선원이 내 딸 옆에 앉아 있다가 내 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가 시작을 하려고 했다. 내 딸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나도 한 인간이에요.". 딸아이는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그 아이 나름대로 암송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아이는 '자마다' 라는 말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이 성구를 배울 때 그 말을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그 선원이 와서 내게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성경구절을 암송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오직 하나의 구절이었거든요. 그러나 나는 어린 꼬마가 그것을 암송할 때까지 그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마다' 를 말했을 때, 나는 이것이 나를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로 돌아가서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 젊은이는 남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가 결혼한 몇 년 후까지 나의 장인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데 어린아이들을 이용하셨다.

루디가 세 살, 브루스가 다섯 살일 때, 할아버지 댁에 갔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동시(童寺)를 외우게 하려고 하셨다. 「메리는 작은 양을 가졌다」와 「Little Boy Blue」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하더니 “누가 Little boy blue 예요?”하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제 아내가 “그 아이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브루스야, 로마서 3 장 27 절을 외워 봐.”하고 말했다. 물론 브루스는 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것도 외울까요? 할아버지?” 라고 말했다. “그러렴.” 브루스는 모두 15 개의 성경구절을 외웠다. 이것이 할아버지를 아주 기쁘게 해드렸다. 그는 손자들을 데리고 이웃과 이모들과 삼촌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들이 성서를 얼마나 잘 아는지를 보여 주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오래지 않아 어린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장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뿌렸다. “어린아이와 젓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어 . . . . (시 8:2). 99

영적 승리자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영적 승리자가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이다. 얼마나 구주를 잘 알고 있나와 그들이 다른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있나에 달려 있다. “오,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 29:25).

하늘 아래서 재생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죄와 나이가 차지 않은 것과 그리스도와 영적 사권의 부족,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 더구나 만일 영적 부모가 늘 돌보고 그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된 영적 음식을 먹여 준다면, 거듭나서 새로 출생한 그 아기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변함없는 법칙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결과를 보게 된다.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몇몇이 받아들이고 새로 출생하게 된다. 한 영혼이 태어날 때,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보살펴 주라. 바울 사도는 양육을 믿었던 분이였다. 신약은 대부분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쓴 양육서이다.

야고보도 그것을 믿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 (약 1:22), 베드로도 그것을 믿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벘전 2:2). 요한도 그것을 믿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 1:4).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의 서신들이 초신자를 위한 음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그리고 신문도 없던 1 세기 동안에 퍼져 나갔다. 왜냐하면 새로 출생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리만 채우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오게 하면 그들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구원한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가? 자매들이여! 당신이 구원한 자매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딸은 어디에 있는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 암송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주일학교에서 72 세의 할머니와 78 세의 다른 한 분이 'The Navigators Topical Memory System'을 마치셨다. 그후에 그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줄 것을 가지게 되었다.

이 귀한 씨들(말씀)로 당신의 심령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당신에게 보낼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많은 심령들이 있다.

## 증식의 비전 / 빌리 헨크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 24:14).

몇 년 전 어느 맑은 날 오후 나는 유명한 어떤 영국 목회자가 외치는 잇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 "북미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지금의 목회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의 이 큰 교회들은 앞으로 25년 내지 50년이 지나기 전에 영국의 대사원처럼 텅 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교역자는 예언자적인 확신을 가지고 외쳤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사역을 하여 원숙해진 겸손한 인물이었다.

### 전통적인 방법론

그 영국 목회자의 말을 들은 이후 나는 그의 주장을 다시 깊이 연구해 보기로 작정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말에 담긴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영국의 영적인 생명력이 식어가고 교인수도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미국 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는 거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교인의 자녀들을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례를 주고자 하는 유혹을 거부해야 하며, 우리의 전도 방법이 이제까지 전해내려 온 전통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엄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거의 배타적인 우리의 전도 방식은 설교를 통해 교인수를 늘리는 것인데 이것은 영국의 찰스 스펀전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훌륭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던 때를 회상하게 한다. 신학교수준에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항상 신학적인 개념과 학문성에는 초점을 두면서 반면에 어떻게 평신도들을 사역에 맞도록 훈련시키는가 하는 실제적인 교육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제자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급속히 저하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역 교회 차원에서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결국 교인수가 심각하게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런던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를 위해 일하던 어느 날, 영국의

젊은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점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의 영국적인 관점과 나의 침례교적인 배경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과 기타 방법을 비교하면서 두 나라 교단의 전도에 관해 토의를 하게 되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 중의 하나라고 많은 칭찬을 하고 난 후 그는 나에게 너무도 마음을 깊이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즉 "침례교의 평신도들 가운데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다.

사실 그때 나는 그 영국 전도자가 내가 속한 교단이 해외 선교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혹은 대중적인 전도대회나 성공적인 도시 연합 전도 집회와 같은 것에 대해 묻기를 바랐는데, 뜻밖에도 나를 가장 당황케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가장 성공적인 해의 경우, 평신도와 목회자가 합하여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한 비율은 5 퍼센트 안팎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서 훈련받은 사역자가 충분치 않은 것이다. 전도해야 한다고 동감하는 비무장된 군대는 많으나 실제로 영적 추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사실이다. 많은 관객들이 이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일을 감사하면서 일꾼들에게 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 추수에 직접 참여하는 법은 알지 못한다.

여러 기독교 단체의 초빙을 받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사역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미해결 상태에 놓인 전도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는 가장 고귀한 영국의 젊은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점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의 영국적인 관점과 나의 침례교적인 배경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과 기타 방법을 비교하면서 두 나라 교단의 전도에 관해 토의를 하게 되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 중의 하나라고 많은 칭찬을 하고 난 후 그는 나에게 너무도 마음을 깊이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즉 "침례교의 평신도들 가운데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다.

사실 그때 나는 그 영국 전도자가 내가 속한 교단이 해외 선교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혹은 대중적인 전도대회나 성공적인 도시 연합 전도 집회와 같은 것에 대해 문기를 바랐는데, 뜻밖에도 나를 가장 당황케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가장 성공적인 해의 경우, 평신도와 목회자가 합하여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한 비율은 5 퍼센트 안팎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서 훈련받은 사역자가 충분치 않은 것이다. 전도해야 한다고 동감하는 비무장된 군대는 많으나 실제로 영적 추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사실이다. 많은 관객들이 이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일을 감사하면서 일꾼들에게 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 추수에 직접 참여하는 법은 알지 못한다.

여러 기독교 단체의 초빙을 받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사역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미해결 상태에 놓인 전도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는 가장 고귀한 서 전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제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준 높은 사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올바른 지도를 받도록 교회, 학교, 신학교에서 전략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여기서 '증식'이라는 단어는 덧셈에 의한 증가보다는 곱셈에 의한 배가를 의미한다. - 역자 주).

허셸 홉스(Herschel H. Hobbs) 박사는 다음과 같이 현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즉 "전도의 일은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을 부연한다면, 제자를 삼는 과정이 끝나려면, 그 새로운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커다란 순환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사랑과 훈련 그리고 개인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제자 훈련의 사역은 열매가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히 그와 같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

교회의 위대한 전도 과제가 잘 성취되려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여러 원리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우리 사역의 철학을 최신화해야만 한다. 후에 제 4 장에서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과 동거(association)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 시키셨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역을 배우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었다. 사도 마가는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막 3:14)라고 말했다.

제자들의 전도는 예수님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지냄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그들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다. 즉 전도, 상담, 설교, 교육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형식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역의 '방법' 을 보여 주셨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늘 하던 그대로 '왜' 전도해야 하는지는 잘 말해 주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가는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설교와 교육은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 주신 훈련 개념과는 대치될 수가 없다. 현대 교회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설교와 교육을 멀리할 수는 없지만, 신약적인 제자 훈련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생동하는 사역에 헌신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게 될 때 교인들은 훈련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역의 수행 방법을 보게 될 것이다(엡 2:10). 이것이 실제로 실시되기 전까지는 전도, 증식의 확산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반 교인들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빌리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설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내게 외우도록 하였던 첫번째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필요한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자기가 아는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이 이 모형을 따랐다면 교회는 한 세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고 거의 일생을 바쳤던 대중 전도 집회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결코 완수할 수는 없으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하는 이 전략으로써는 가능하다는 것이다(The Holy Spirit, Word Books, 1978. P.147).

대중 전도자인 나도 숫자를 늘려 가는 정도의 전도로는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없다는 그레이엄 박사의 말에 깊이 동감하고 있다. 내 마음에 있는 큰 부담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배가하는 증식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리만이 복음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생활 속에 좌절감과 영적 피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장기 전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와 지도급의 교인들이 최선의 것을 잊은 채 수많은 행사에 몰두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역을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만한 시간이 나지 않는다. 이런 훈련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역자들은 실력 있는 평신도들의 강한 뒷받침 없이 지역 교회 사역에서 수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유급 직원들이 교회의 육성, 상담, 병원 방문 및 기타 전도 사역을 각기 나름대로 수행하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자기의 시간이 너무 귀하여 평신도를 위한 지도자 훈련에까지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장래 사역에 최대의 책임을 감당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최대의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사역 형태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한 지역에서 대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어떤 친구로부터 장거리 전화를 받았다. 그곳에서 3년을 목회했는데 이제는 너무 힘이 들고 실망되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도 동감한다면 다른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였다.

나는 그가 교인 가운데 지도적인 평신도 몇 사람에게 자기 시간을 투자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교인이 한 명도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였다. 나는 500 여 명이나 되는 교인 가운데에는 신앙 성장과 전도를 위한 일대일훈련을 하도록 도전하면 순응할 사람이 몇 명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나려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거의 불평에 가까웠다. "교인들 중에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날씨가 따라 변화가 심하고, 주일학교 반사들도 무책임하여 알리지 않고 결석하는 예가 많네."

"만일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핑계가 된다면,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반수가 벌써 교회를 사임하였을 것이네." 나는 그에게 교인 가운데서 훈련을 시킬 만한 신실한 사람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도록 하였다.

6 주일 후에 그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나는 언제나 그의 열정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전화를 통해 문자 그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였다. "여보게 빌리, 하나님을 찬양하네. 사람을 찾았네. 한 사람은 월요일에 만나고, 또 한 사람은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이네."

나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잘 알고 있었고, 제자 훈련을 시키겠다는 내 친구의 제안을 허락했던 것이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벌써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인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 달라고 했다네."

나는 다시 물어 보았다. "자네 지금도 다른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할텐가?" 그는 크게 웃으면서, "무슨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네. 이제는 몽둥이로 쳐도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걸세."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발견한 사실은 주일학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교회 출석은 여전히 변동이 심하며, 전반적인 상황이 이전과 거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것인가? 다만 세 사람이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 친구 목회자는 그 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통해 자신이 성취 되어감을 보기 때문에 활력이 넘쳐 있었다. 이 세 사람이야말로 그의 사역에 새로운 밝은 시대를 열어 준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시간 투자법을 배운 것이다.

이러한 제자 훈련이 없을 경우, 다수의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은사가 개발되지 않고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교인들은 개인 전도를 위해 유용한 전략을 배우지 못해,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단순한 교인으로서 삶이 고정되고 만다. 종종 이들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올바른 지도와 사랑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열심은 있어도 성경에는 무지한 미숙아와 같아서 이단 교리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고 예수께서 하신 것같이 그들을 훈련시키며 바울과 바나바처럼(행 14:21~23) 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면, 기독교의 초기시대 이후로 우리 세대에서 회심자들이 가장 크게 증가되고 교인이 증식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증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생활에는 사랑, 비전, 자아 훈련 및 상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목회자,

선교사 및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명령을 진지하게 수용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연될 것이다. 그의 재림은 세계 복음화에 달려 있으며 (마 24:14), 세계 복음화는 그의 성도들이 사역을 위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가 복음화의 통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위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한 때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고 형성했던 것같이, 미래 교계의 영적인 운명을 우리 손에 위탁하셨다는 것은 놀랄만한 실제이다. 감히 실패할 수 있겠는가?

지도력에 대한 비평은 우리 세대까지 내려왔으며, 이제는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다. 세계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우리는 교차로에 서있다. 이제까지의 교인 증가 방식이 아무리 훌륭했다 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했다. 그 자체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용기, 새로운 비전 및 총계적인 신약적 사역 철학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전도 증식의 위력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주의 백성이 영적인 재생산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장기 훈련 계획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이천 년의 교회 역사가 있고 또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바로 이 순간에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별첨> 1.

# 양육 보고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양육자 :	피양육자 :
양육 일시 :	양육 장소 :

양육 내용 및 보고 :

<p>좋았던 점:</p>	<p>어려웠던 점:</p>
<p>기도제목:</p>	<p>교훈:</p>
<p>기타:</p>	

